

	青於藍 국어 2011 서울시 9급	청어람(靑於藍)국어의 저자 송병렬 선생과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송병렬 국어단과 합격을 위한 필수강좌! 국어의 벽(壁)을 넘는 강의!!
---	---	--

누리마루 비문학특강	월,화,수 08:00~08:50	新유형분석125제	월,수, 15:30~18:00
------------	-------------------	-----------	------------------

1. 다음 중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그곳은 아직 한 겨울이라 날씨가 좋지 않았다.
- ② 요즘 풀을 뽑고 마당을 늘리는 일에 재미가 붙었다.
- ③ 그 아이는 헬썩한 얼굴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 ④ 모인 사람의 수는 건잡아도 100명은 충분히 넘어 보였다.
- ⑤ 이것은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야.

풀이 ②

②의 ‘붙다’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는 뜻이다.

① 한 겨울 → 한겨울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한겨울’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③ 헬썩하다 → ‘헬썩하다’ 또는 ‘해썩하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는 뜻이다.

④ 건잡다 → 겹잡다

‘겹잡다’는 ‘거두어 바르게하다’는 의미이고, ‘겹잡다’는 ‘겹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는 뜻이다.

⑤ 머리 아픈데 → ‘머리 아픈 데(에)’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의존 명사로 쓰인 예이다. 따라서 띄어 써야 한다.

2. 어법상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은?

- ① 그 일은 하루 이틀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② 중요한 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다.
- ③ 형은 무엇보다 야구를 좋아했고 나의 취미는 축구였다.
- ④ 열차가 서서히 도착하고 있었다.
- ⑤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풀이 ①

② 주술 호응의 오류이다.

→ 중요한 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가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점)이다.

③ 평행구조의 오류이다.

‘형은 무엇보다 야구를 좋아했다’와 ‘나의 취미는 축구였다’의 평행구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등적 연결어미인 ‘-고’를 사용하면 안 된다.

→ 형은 무엇보다 야구를 좋아했지만, 나의 취미는 축구였다.

④ 시제의 불일치

‘도착하다’는 즉 완료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고 있다’는 진행상과 호응할 수 없다.

→ 열차가 서서히 도착했다.

⑤ 중의적 표현

관형어 ‘여자의’의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인지,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자들의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3.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모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워크샵(workshop), Seodaemun-gu(서대문구)
- ② 팜플렛(pamphlett), Cheonglyangli(청량리)
- ③ 슈퍼마켓(supermarket), Youngdungpho(영등포)
- ④ 심포지움(symposium), Gyeongbokgung(경복궁)
- ⑤ 앙케트(enquete), Biwon(비원)

풀이 ⑤

- ① 숲, 샵 등은 'ㅅ'으로 어형을 통일한다. 워크샵(workshop) → 워크숍
- ② 행정단위명이 아닌 관습화된 지명은 표음위주로 표기한다.
Cheonglyangli(청량리) → Cheongnyangni
- ③ 외래어 표기에 'ㄱ, ㄴ, ㄷ, ㅁ, ㅂ, ㅅ'만 인정한다. 슈퍼마켓(supermarket) → 슈퍼마켓,
모음 'ㅓ'는 'yeo'로 표기하며 받침 첫소리 'ㅍ'은 'p'로 표기한다.
Youngdungpho(영등포) → Yeongdeungpo
- ④ 심포지움(symposium) → 심포지엄

4.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뭐라고?”라고 물었다.
- ② 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 ③ 차가 끊겨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 ④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니.
- ⑤ 말로만 큰 소리 친다.

풀이 ①

- ‘라고’는 인용격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② ‘뿐’은 체언 뒤에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 ③ ‘걸어가다’는 합성어, ‘-밖에’가 ‘오직’의 뜻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차가 끊겨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 ④ ‘느커녕’은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사과 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니.
- ⑤ ‘큰소리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말로만 큰소리친다.

5. 다음 중 어문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ㅎ 중성체언’은 뒷말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 ② 한자어와 한자어 형태소 사이에 사이소리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 ③ ‘퇴간, 회수’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④ ‘입때’는 ‘이+때-이ㅂ때’로 분석된다.
- ⑤ 순 우리말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풀이 ③

한자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나, ‘찾간, 텃간, 곳간, 셋방, 숫자, 횃수’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6. 맞춤법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송병렬교수의 청어람국어교실

<http://cafe.naver.com/shd1025>

청어람국어시리즈특강

- ① 솔직히, 녕쿨, 우레, 삼가다
- ② 오뚝이, 육개장, 널빤지, 깡소주
- ③ 구레나룻, 오랜만, 험쌀, 어리숙하다
- ④ 일찍이, 멋쟁이, 곱배기, 오순도순
- ⑤ 늘그막, 딱따구리, 오뚝이, 넓다랗다

풀이 ①

<오답풀이>

- ②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깡소주→강소주(안주 없이 먹는 소주)
- ③ 어리숙하다 → 어수룩하다 =어리송하다
- ④ ‘배기’, ‘빼기’는 표음위주로 쓰되 ‘뚝배기, 학배기’는 예외다.
곱배기 → ‘곱빼기’
- ⑤ ‘널따랗다’가 맞는 표기이다.

7. 다음은 기사문의 일부이다. ()안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글로벌 TV 시장 1위기업인 삼성전자가 서터안경식 3D TV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과 손을 잡았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로컬 TV 브랜드인 창홍, 하이얼을 포함해 '3D TV 연맹' 결성식을 가졌다.

참여업체 면면을 보면 5년째 글로벌 TV 시장 1위기업인 삼성전자와 아날로그 TV시절의 제왕 소니, LCD TV 원천특허 보유업체인 샤프, PDP 시장의 제왕 파나소닉 등 TV산업 역사상 한 획을 그었던 TV 브랜드들이 한데 뭉친 셈이다. 3D TV 시장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여왔던 맞수기업들이 ()하는 형국이다

- ① 類類相從 ② 同病相憐 ③ 臥薪嘗膽 ④ 我田引水 ⑤ 吳越同舟

풀이 ⑤

삼성전자 주도의 '3D TV 연맹'의 결성은 3D TV 시장을 주도해왔던 경쟁사들끼리 모여 서터안경식 3D TV 기술의 우수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서터안경식 3D TV를 출시해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오월동주(吳越同舟)'가 가장 어울린다.

- ① 유류상종(類類相從)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오월춘추》의 예 나온다.
-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 거북한 쏘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다음 작품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8~9)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다.

8. 위의 작품에서 '두꺼비'의 연관념은?

- ① 애완동물 ② 동생 ③ 자전거 손잡이
④ 아버지의 양 손 ⑤ 겨울잠

풀이 ④

이 시는 박성우의 <두꺼비>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노동에 시달리셨던 아버지의 거친 양 손을 '우툴두툴한 두꺼비'에 비유하고 있는 시이다. 비유는 연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을 꺼리셨다',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다', '아버지 양손에 두꺼비가 살았다' 등의 내용을 통해 연관념을 유추해야 한다.

작품연구 박성우 <두꺼비> 전문(全文)

아버지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 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
한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 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뱉어대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9. 위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환기하는 시어는?

- ① 두꺼비 ② 막일판 ③ 손잡이 ④ 헌집 ⑤ 겨울잠

풀이 ⑤

'두꺼비'가 아버지의 손을 비유한다고 할 때, 연로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두꺼비집 안에서의 긴 겨울잠'이다. 봄이 되어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시구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 복원 미흡함)

만공탑에서 다시 돌계단을 오르면 정혜사 능인선원이 나온다. 정혜사 앞뜰에 서서 담장을 앞에 하고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면 홍성 일대의 평원이 일망무제로 펼쳐진다. 산마루와 가까워 바람이 항시 세차게 불어오는데, 살면서 쌓인 피곤과 근심이 모두 씻겨지는 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 호탕하고 맑은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질 것이다. 정혜사 약수는 바위 틈에서 비집고 올라오는 샘물이 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석조에 넘쳐흐르는데 이 약수를 덮고 있는 보호각에는 '불유각(佛乳閣)'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부처님의 젖이라! 글씨는 분명 스님의 숨씨다. 말을 만들어낸 숨씨도 예사롭지 않다. 누가 저런 멋을 가졌던가.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설혹 틀

린다 해도 상관할 것이 아니었다. (훗날 다시 가서 확인해보았더니 예상대로 만공의 글씨였다.) 나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그만한 크기로 인화해서 보며 즐겼다. 그런데 우리 집엔 그것을 걸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임시방편이지만 나는 목욕탕 문짝에 압정으로 눌러 놓았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 ① 돌계단을 오르면서
- ③ 정혜사의 불유각
- ⑤ 일망무제의 평원

- ② 정혜사 능인선원
- ④ 약수 보호각

풀이 ③

(제시문이 좀 더 길 경우는 ②도 가능함. 제시문 복원이 미흡하므로, 참고하기만 할 것.)

이 글은 기행문이므로, 화자의 여정과 견문, 감상을 포함할 수 있는 핵심 제재를 찾아 제목으로 해야 한다. 제시문은 '정혜사 능인선원'에서 본 경치(일망무제의 평원)와 약수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다가, 핵심 제재인 '불유각'이라는 현판이 지닌 멋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은 ③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제시문이 정혜사 능인선원에 대해 좀 더 길게 서술하고 있다면, 전체의 견문을 포괄하고 있는 ②도 답이 될 수 있다. 복원이 미흡하므로, 참고용으로만 보기를 바란다.

11. 다음 글의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다. 매체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는 구실을 하여 나중에 직접 어떤 사람에게서 새 어형을 접했을 때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듣던 것이면 더 쉽게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새 어형이 전파되는 매체를 통해서보다 상면하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라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견해이다. 사람들은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언어변화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은 새 어형을 쓸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여게 된다고 한다. 매체를 통해서 보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 언어 변화가 진전된다는 사실은 언어 변화의 여러 면을 바로 이해하는 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① 언어 변화는 결국 접촉에 의해 진행되는 현상이다.
- ② 연령층으로 보면 대개 젊은 층이 언어 변화를 주도한다.
- ③ 접촉의 형식도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 ④ 매체의 발달이 언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⑤ 언어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일수록 그 속도가 느리다.

풀이 ③

일반적인 상위 진술을 찾으면 된다.

()에 이어지는 말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과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 둘 중 어느 것이 더 언어 변화에 진전을 미치느냐에 대한 진술이므로 ③ '접촉의 형식도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를 일반적 진술로 보고 () 위의 문장을 구체적 진술, 즉, 상술로 파악해야 한다.

12. 다음 중 표기가 맞는 것은?

송병렬교수의 청어람국어교실

<http://cafe.naver.com/shd1025>

청어람국어시리즈특강

- ① 절대절명의 순간 그를 구한 것은 옛 친구였다.
- ②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30년 전 홀홀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셨다.
- ④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었다.
- ⑤ 식구를 이끌고 그는 고향에서 몰래 야밤도주하였다.

풀이 ②

- ① 절대절명.→절체절명(絶體絶命)
- ③ 홀홀단신 → 혈혈단신(孑孑單身)
- ④ 풍지박산. →풍비박산(風飛雹散)
- ⑤ 야밤도주→야간도주(夜間逃走)=야반도주(夜半逃走)

13.다음은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 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 ① 작가는 '봉별기, 종생기, 지주회시' 등을 썼다.
-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 ③ 1930년대 발표된 풍자소설이다.
- ④ 개인의 일상적 문제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
- ⑤ 해학성과 토속성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따뜻한 인간애와 날카로운 사회적 통찰력을 보여준다.

풀이 ①

①은 이상의 대표적 작품이다.

'날개'는 1인칭 주인공시점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또는 식민지 지식인의 내적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③은 채만식의 소설적 경향이며, ⑤는 김유정 문학의 특징이다.

작품연구 **이상의 <날개>**

- 갈래 : 단편소설, 심리주의 소설
- 배경 : 일제 강점기의 서울 거리.
18가구가 살고 있는 33번지 유곽(遊廓)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1. 성격 : 자기 고백적, 상징적
 2. 주제 : 전도된 삶과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본래적 자아를 지향하는 인간의 내면 의지
 3. 출전 : [조광](1936. 9)

14. 다음 두 시의 공통점이 바른 것은?

(가) (작품 미복원)

(나)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송

① 주지주의적 시다.

③ 삶에 대한 관조적인 시다.

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② 제재는 '하늘'이다.

④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

풀이 ③

15. 고전시가 정읍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제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고 있다.

③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가요이다.

④ 주술성을 지녀 집단적으로 불렀다.

⑤ 고려 시대 속요로 불리었다.

풀이 ④

'정읍사'는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이후 구백제(舊百濟) 지방의 노래로 짐작된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며,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요 중 가장 오래 된 것이다. 내용은 정읍현(井邑縣)에 사는 행상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높은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혹시 방갈에 위해(危害)를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나타낸 노래이다.

작품연구 정읍사의 형성과 전승

《고려사》 <악지 : 삼국속악>에 <정읍(井邑)>이란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자로 해설된 내용이 현전 노래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아 백제의 노래 혹은 민요가 궁중의 악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무고(舞鼓)>에 <정읍사>를 노래불렀다는 기록이 《고려사》 <악지 : 속악>에 있고, <무고>는 시중(侍中) 이혼(李混)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혼의 생존 시기인 충렬왕 때에 개경 주변에서 창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이혼이 가(歌)·무(舞)·악(樂)이 일체를 이루어 공연하는 정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읍사>가 사용되었다고 본다면 백제가요인 <정읍>이 고려 속악으로도 채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사》에는 이어(俚語), 즉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기록할 수 없었고 조선조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인 <무고>에 비로소 우리말 가사로 정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이 노래는 선달 그믐날 밤에 사신(邪神)과 귀신을 쫓는 나례(儺禮) 후에 공연되는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에서 <처용가> 등과 함께 연주되었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송병렬교수의 청어람국어교실

<http://cafe.naver.com/shd1025>

청어람국어시리즈특강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그대로 발연 낮빛이 변하며 머리를 흔들고 눈을 찔룩대며 붉으락 푸르락 눈을 간간조름하게 뜨고, 눈썹이 꼳꼳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뾰드득 뾰드득 갈며, 온몸을 수숫잎
 틀 듯하며, 매 꿩 채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말이오!”
 왈각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버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찌고 어찌요? 이것도 쓸 데 없다!”
 명경, 체경, 산호죽절을 두루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치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치고 돌아 앉아 자탄가로
 우는 말이,
 “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의 사랑 받을꼬! 몸을 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은
 것이 이별될 줄 어찌 알아 부질없는 이내 몸을 허망하신 말씀으로 앞길 신세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① 인물의 행동묘사를 통해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차림새를 묘사하여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생활 방식을 들어서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하여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가진 살림살이 등을 들어 그가 처한 상황을 밝히고 있다.

풀이 ①

잠시 이별을 통보받은 춘향이 이몽룡에게 화를 내며 신세한탄을 하는 부분이다.

17. 다음 문장 중 한자어가 옳은 것은?

- ①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障害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 ② 절대 큰 꽃 장식은 謝絶입니다.
- ③ 격조와 稟議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 ④ 채권자가 적절한 채무 移行을 청구함
- ⑤ 십만 원에 上堂하는 상품을 받음

풀이 ②

① 障害→장애(障礙)

•장애(障礙):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또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 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장해(障害):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

③ 稟議 → 품위(品位)

•품의(稟議):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의논함.

•품위(品位):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④ 移行 → 이행(履行)

•이행(移行): 다른 상태로 옮겨감.

•이행(履行): 실제로 행함.

⑤ 上堂 → 상당(相當)

•상당(上堂): 하회 별신굿에서, 본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제주(祭主)와 무당, 광대들이 모여 음식을 차려 놓고 서낭대와 성 쯏대를 세워 신이 내리기를 비는 곳.

•상당(相當):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함.

1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잘못된 것은?

송병렬교수의 청어람국어교실

<http://cafe.naver.com/shd1025>

청어람국어시리즈특강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혼자 젊어 있고 님 혼자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건줄 디 노여 업다
 平聲싱에 願원하요디 혼디 네자 하얏더니, ㉣늡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서 廣光寒한殿던의 올낫더니㉤그 더디 엇디하야 下하界계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 디 三삼年년이라.

- ① ㉠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이 따라 태어나니
- ② ㉡ 나 혼자만 젊어 있고 임은 홀로 나를 괴로이 여긴지니
- ③ ㉢ 평생에 원하되 임과 함께 살아가려 했더니
- ④ ㉣ 늡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그리워하는고?
- ⑤ ㉤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를 내려왔는가.

풀이 ②

‘괴다’는 중세국어에서 ‘사랑하다’의 의미에 착안하여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작품연구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비교

1. 공통점

- ① 가사 문학의 절정을 이룬 작품
- ② 서포 김만중이 '좌해진문장 지차삼편(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이 세 편(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뿐이다.)'이라 칭송함.
- ③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문학성을 높임
- ④ 임에 대한 그리움(충신연군지사)이라는 주제

2. 차이점

- ① <속미인곡>이 <사~>보다 더욱 뛰어나고 세련된 우리말을 구사함
- ② <사미인곡>의 결사는 일방적인 연군으로 소극성을 보이지만, <속~>의 결사에서는 '긋은 비'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보인다.
- ③ <사미인곡>의 사상 전개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구성 방식이라면, <속미인곡>의 전개는 두 여인의 대화체로 되어 있다. 물론 사계절의 변화가 <속미인곡>에도 나타나지만 극히 일부분으로 처리되고 만다.

19. 이 글의 지은이가 글을 쓴 목적으로 바른 것은?

삼가 생각건대 공경을 바치고 예를 다하는 것은 임금에 이에 스승을 얻는 것이요,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돕는 바입니다. 신이 전번에 운명(綸命)을 받들어 오래도록 서연에서 모셨는데, 거지(擧止)가 우소(迂疏)하여 족히 잘못을 바꾸지 못하였고, 견문(見聞)이 거칠어서 올바르게 바꾸는 데에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차마 속이겠습니까? 하물며 백발은 성성하고 눈까지 어두움에리까! 귀는 허송(許丞)처럼 어둡고 팔뚝은 두자(杜子)처럼 불수가 되었습니다. 현지(軒墀)를 사모하다가 진실로 상유(桑榆)의 늦은 햇빛을 거두지 못하면, 구렁에 굴러 떨어져 송백(松柏)이 겨울에 푸른 절개를 보전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 ① 나이 어린 임금에게 완곡하게 진언함
- ②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사죄함
- ③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

- ④ 늙고 병든 신세 하소연함
⑤ 벼슬아치의 도리에 대해 충고함

풀이 ③

제시문은 ‘안축과 이곡을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전(箋)’으로 이제현의 글이다.

즉, 상소문으로 자신이 병들고 건문이 부족함을 내세워 벼슬을 내놓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箋)’이란 전문(箋文)의 준말로 나라에 길사(吉事)·흉사(凶事)가 있을 때 신하가 임금께, 또는 임금이 그 어버이의 수하(壽賀)에 써 올리던 사육체(四六體)의 글. 사육체는 한문체의 하나로,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구법(對句法)을 쓰는 문장체를 이른다.

20. 다음 글의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와는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햇빛에 비취어 유화는 몸을 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좇아와 비쳤다. 그래서 임신을 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왕 금와는 알을 버려 개,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또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후에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주었다. 왕은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다. 그 어머니가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빼어나고 기이하였다.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에 남달리 뛰어나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이름을 삼았다

- ① 설화문학의 하위갈래에 속한다.
② 상징적 언어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③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푸는 이야기다.
④ 일상적 현실과 합리를 초월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⑤ 증거를 근거로 진실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풀이 ⑤

● 신화, 전설, 민담의 특성 구분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성 인식	진실성을 믿음	흥미와 교훈 위주
시간 및 장소	태초의 시간, 신성한 장소	구체적 시간, 장소	서사적 과거, 불특정장소
증거물	포괄적 증거물	특정의 개별 증거물	없거나 포괄적 증거물
주인공	신 중심	인간 중심	일상적 인물
주인공의 행위	신적 능력 발휘	예기치 않는 사태에 좌절	인간적 행동, 초월자의 도움
결구의 특징	승고함, 종교적	비극적, 운명론적	희극적, 낙천적
전승 범위	민족적, 씨족적	지역적	범세계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	자아 = 세계(동질성시대)	자아 < 세계(자아의 좌절)	자아 > 세계(자아의 우위)